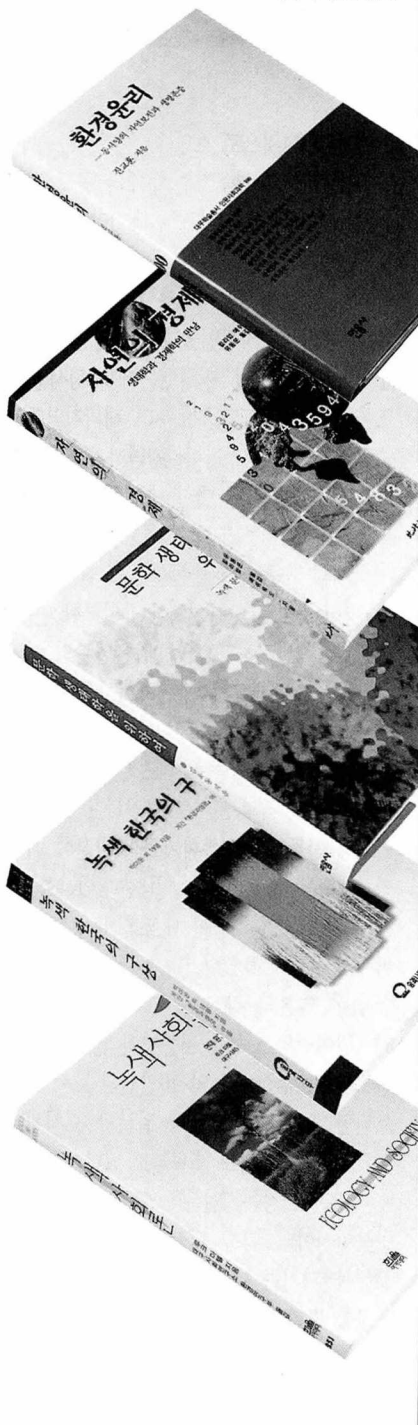


# 학문과 연대하는 '녹색'의 사유

생태학적 성과물 이어져... 철학·사회학·문학 등 인접학문과 접속

21세기를 앞두고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국내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유엔 환경계획(UNEP)의 '98~99년 세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수백만명이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수명을 다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과 인류 수명과 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한 이 보고서는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문으로 읽힌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생태계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출판계에는 생태학을 주제로 한 책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전에는 지구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상태를 고발하는 책과 서구 선진국의 생태이론을 번역 소개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 출간되고 있는 책들은 국내학자들이 생태학과 철학·사회학·경제학·문학 등 인접학문을 접속시켜 새로운 생태학적 전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자연과 인간의 자연스런 관계 추구

먼저 철학적·윤리학적 입장에서 생태학적 사유를 분석한 두 권의 책이 나와 눈에 띈다. 계명대 이진우 교수의 《녹색사유와 에코토피아》(문예출판사)와 진교훈 교수의 《환경윤리》(민음사) 등이 그것.

《녹색사유와 에코토피아》는 생태학적 유토피아, 즉 에코토피아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가득차 있다. 이 책은 18세기 고야의 메조틴트 판화 '거인'에서 생태학적 위기에 처한 인간의 자화상이 암시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인류가 추구해온 기술문명의 유토피아가 생태학적 디스토피아로 전환하는 지점에 인류가 서 있음을 입증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제 인류는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를 추구하는 '기술적 사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녹색사유'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녹색사유의 궁극적 표현인 생태학적 유토피아(에코토피아)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할 것, 자제와 절제의 윤리를 확립할 것,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어갈 것 등이 저자가 제시하는 모범답안이다.

과학기술문명의 한계에서 생태학적 위기를 파악한 《녹색사유와 에코토피아》와는 달리, 진교훈 교수(서울대)의 《환경윤리》(민음

## 최근 생태학을 주제로 한

책들은 철학·문학·사회학·

경제학 등 인접학문과

접속해 새로운 생태학적

전망을 보여주는 국내 저서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책은

또 동양정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어

새로운 성과로 평가된다.

사)는 과학이나 기술보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도덕적 가치판단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 근거로 서양의 전통적 자연관의 문제들, 즉 자연의 탈신화화,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유물론, 과학의 탈가치화, 도구적 가치관 등을 제시한다.

동서양의 전통적 자연관을 비교 분석한 이 책은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과 한국인의 민간신앙에서 생명존중사상과 자연보전, 그리고 평화애호 등 적극적인 가치를 발견한다. 저자는 결국 우리가 당면한 생태학적 위기는 자연보전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간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과 윤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정치학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접근한 책들도 새롭게 선보였다. 《녹색사회론》(루크마텔 지음, 대우사회연구소 환경연구부 옮김, 한울)은 사회와 정치철학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의 환경문제를 논의한 책.

이 책은 환경문제가 자연환경과 정치경제적 구조에서 일어나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지구적 연대가 필요하며,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좌파적 관점을 소개한다. 결국 환경론이 새로운 사회변혁의 이론적 기초로서도 기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경제학에 생태학을 접목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인 《자연의 경제》(윌리엄 애쉬워드 지음, 유동운 옮김, 비봉출판사)는 사회주의적 변혁의 관점에 선 앞의 책과는 입장이 다르

다. 자연생태계도 경제질서를 좇고 경제계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므로 두 학문을 통합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생태계에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수요-공급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 생태학적 세계관의 문학비평과 이론

생태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딱딱한 이론과 논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면 문학은 직관과 상상력에 의해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생태계의 위기를 담아낼 수 있다. 지금까지 개별 문학작품의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던 생태학적 시도들을 하나의 일관된 질서 속에 파악하려는 시도가 김옥동 교수(서강대)의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민음사)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문학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라면, 마땅히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와 소설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비평과 이론까지도 녹색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창작가와 문학연구자가 떠맡아야 할 임무요 과제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 입장.

이 책에서는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준 시·소설·희곡·비평·이론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게리 스나이더·루드비히 피엔홀트·김지하·정현중·문정희 등의 시와 밀란 쿤데라·조세희·김원일·한승원 등의 소설이 그것. 문학 생태학에 대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값지다.

이러한 생태학 관련서들은 정치학자부터 문학자까지, 좌파에서 우파까지 그 분야와 관점들은 다양하지만, 인문사회과학과 생태학과의 전략적 제휴의 산물이다. 이론의 정교성이나 현실 정합성은 앞으로 더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서구적 인간이성의 오만과 편견을 바로잡고 동양적 정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과이다. 21세기를 앞두고 녹색한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 박천홍 기자